

졸업앨범 공개입찰 공정성 논란

심사위원 임의 구성에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아



졸업앨범업체 선정 심사위원회 4학년 과대표 전체에게 통보도 되지 않은 채 각 단과대에서 무작위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도 졸업앨범입찰업체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입찰에 참여했던 2개의 업체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 홍정용, 이하 졸준위)의 심사과정이 불공정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졸업앨범 심사위원 구성방법과 심사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졸업앨범업체 공개 선정과정에는 모두 3곳이 입찰했다. 총대의원회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졸업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4학년 과대표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3명이 심사했다. 심사위원은 졸준위가 정한 제작앨범사양(용지 및 분량), 앨범가격, 사업계획, 앨범견본, 경력의 심사기준을 가지고 정해진 배점을 한 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D업체와 M업체는 심사위원이 4학년 과대표로 다 구성되지 않은 점,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일관적이지 않은 점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통 한 번의 공개입찰로 결정되는 업체선정과정은 2차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M업체 관계자는 "제작앨범사양 기준 표기에 따르면 심사위원 같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심사위원이 한 업체에만 점수를 높게 주었다"며 "4학년 과대표가 정당하게 심사위원으로 왔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정용 졸준위원장은 "평가기준이 숫자로 표기하도록 돼 있기에 심사위원 모두가 똑같은 평가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입찰자들이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선정업체인 L업체가 학생들의 요구를 더욱 잘 받아 주겠다는 의견

이 위원들의 점수를 높게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졸준위는 이번 심사위원 구성 과정에서 4학년 과대표 모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일부만을 졸업준비위원회 임원으로 선발했다. 전체 단과대학 중 의과대와 수의과대, 예술학부 과대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 과대표 중 일부는 위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정부의 한 4학년 과대표는 "졸업앨범 업체 선정을 하는지조차 몰랐다"며 "최소한 졸업앨범 업체 선정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권중 총대의원회 의장은 "과거 4학년 과대표 전체가 심사를 했을 때, 몇몇 과대표가 한 업체에 편파적인 점수를 배점해 업체가 뒤바뀌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임의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건 기자



"벚꽃 환상이죠" 5일 왕벚꽃이 만개한 본관앞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얘기를 나누며 즐거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고봉상 홍보협력팀

도민 28명당 1명은 제주대 구성원

2만116명이 한 식구... 학생수만 1만8282명

우리대학 구성원 수가 2만116명으로 도민 28명당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부에 따르면 제주도민 인구수가 56만7913명인 가운데 우리대학 구성원 수가 3월초 기준 학생 1만8282명, 교원 1516명, 직원 318명 등 2만116명에 달해 도민 28명당 1명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대 학생수는 1만8282명으로 △ 학부생 1만5964명 △ 석사과정 587명 △ 박사과정 400명 △ 특수·전문대학원 1331명 등 1만8282명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 학부생으로는 경상대학이 30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과대학이 2736명, 자연대학이 1903명, 인문대학이 1862명, 법정부 1735명 순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해양대학이 1562명, 사범대학이 875명, 생명대학이 861명, 교육대학(통합전 학생 포함)이 568명, 예술학부가 407명, 의과대학이 220명, 수의과대학 186명 순이다.

또 교원 현황으로는 전임교원이 565명, 기금교수 12명, 조교 163명, 초·중등교사 130명, 시간강사 497명, 명예교수 60명, 초빙교원 13명, 석좌교수 12명, 계약교수 5명, 학술연구교수 8명, 겸임교수 48명, 공로교수 3명 등 모두 15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교원은 전임교원 2명, 초빙교원 13명, 겸임교수 6명, 석좌교수 3명 등 24명이다.

직원 현황으로는 일반직 139명,

기능직 117명, 연구직 1명, 별정직 2명, 기성회직 59명 등 318명에 이르고 있다.

정용복 대기자

사 령

김승지(언론홍보 1)
박경옥(언론홍보 1)
이대유(경제 1)
이정우(언론홍보 1)
양나은(언론홍보 1)
정승우(정치외교 1)

4월 7일자
수습기자에 임명함

테마별 세계교육기행 21개팀 모집

서류·면접심사 거쳐 내달 17일 확정

학생복지과에서 2010년도 제주대학교 테마별 세계교육기행 참가팀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자격으로는 재학생으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재학생중 학내에서 시행한 각종 해외연수 7일 이상 수혜자 및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8학기 이상 등록자는 제외가 된다.

탐방기행은 지역별로 아시아권역

10개 팀 내외, 오세아니아권역 6개 팀 내외, 유럽·미주권역 5개 팀 내외로 총 21개 팀을 선발한다.

지원서 및 서류접수는 학생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 등 각종 서류는 원본 1부, 복사본 10부를 준비해야 한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 70%, 면접심사 30%를 차지한다. 1차로 서류심사가 있는데 서류심사 결과의 발표는 5월17일로 예정돼 있다.

팀 구성은 인솔자와 학부생을 포함해 팀별 총 인원이 4~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인솔자를 포함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학생복

지과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다. 선발이 된 팀은 탐방기간을 하계방학기간(2010년 6~8월) 중 7일 이상의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산 지원은 선발된 팀에 한해 아시아권역은 1인당 100만원, 오세아니아권역은 1인당 150만원, 유럽·미주권역은 1인당 200만원이 지급 된다. 선발된 팀 중에 인솔교수 또는 직원이 동행할 때에는 1명에 한해 아시아권역 120만원, 오세아니아권역 180만원, 유럽·미주권역 230만원이 지급 된다.

백중수 기자

사회봉사활동 공모

취업전략본부 16일까지

봉사동아리 대상

취업전략본부(본부장 박경민)에서 우수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오는 16일까지 공모한다.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팀은 총 40만원을 지원받으며 올해 12월까지 활동한다. 신청 자격은 현재 활동 중이거나 2010학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봉사동아리다. 봉사활동 신청서와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해 취업전략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와 계획서 서식은 제주대 홈페이지 '제주대소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선배들이 말하는 제주대신문사,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대신문사 58기 수습기자 모집

"제주대신문은 나의 뜻을 이루는데 최고의 경험이었다. 목표한 바를 이루고 뜻을 세우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도전해라."

김동주 KBS 시청자센터장(77년 편집장)

"수레바퀴의 중심을 뜻하는 허브족이 뜨고 있다. 쉬운말로 마당발 혹은 오지랖 넓은 사람을 말한다. '마당발' 제주대신문사로서의 의미있는 선택 기대한다."

김범훈 제주일보 논설위원실장(78년 편집장)

"중학교 때 가졌던 기자의 꿈을 제주대신문에서 키웠다. 그리고 지금 당당히 그 꿈을 이뤄냈다. 기자를 꿈꾼다면 제주대신문에 지원해라."

홍성추 서울신문 STV 대표(81년 편집장)

"남다른 미래를 원한다면 남다른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제주대신문사 활동은 당신의 미래를 누구보다 남다르게 만들어갈 것이다."

강명진 법무사(81년 학술부장)

"만약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라. 제주대신문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기회가 될 것이다."

김경호 현대백화점 상무(82년 편집장)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비결이다. 대학신문사 활동은 당신의 자신감과 성공을 이끄는 경험이 될 것이다."

안창홍 제주시대 편집국장(83년 편집장)

"제주대신문은 대학으로 통하는 창이며, 대학을 비추는 거울이다. 학생기자로서 대학 역사를 기록하는 중대한 역할을 당신도 할 수 있다."

윤정용 제민일보 논설위원실장(83년 취재부장)

"대학시절 제주대신문을 만들며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의 마음을 키웠다. 내가 기억하는 대학신문사 활동은 값어치 없을 수 없다."

김계훈 한라일보 논설위원(84년 편집장)

"프로를 꿈꾸는 겁 없는 초보는 나를 선배라 불려도 좋다. 제주대신문사 기자를 선택한 그 순간 영광을 얻는 것이다."

김건일 제주MBC 보도제작국장(85년 편집장)

"그 시절의 열정과 환호, 방황과 좌절을 통해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 지금도 돌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김동운 국어국문학과 교수(86년 편집장)

"와인은 고급레스토랑에서도 어울리지만 삼겹살이며 탕수육을 절이는데도 안성마춤이다. 제주대신문동우는 그런 와인의 향기가 난다."

박훈석 제민일보 정치부장(89년 편집장)

"90년대 초 대학생들의 옷깃에는 진한 최루가스의 향이 묻어났다.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시대의 조류를 뒤집을 수 있는 선택이 당신 앞에 있다."

김호천 연합뉴스 차장(89년 사진부장)

지원자격 : 10학년 신입생

원서접수 : 4월 23일(금) 6시까지

면접일 : 4월 24일(토)

문의 : 754-2277(편집국), 010-6776-8277(편집국장)

특전 : 장학금·원고료·취재료 지급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실습

미국·일본·중국 등 다양한 국내외 취재

DSLR 사진교육과 MAC PC를 이용한 편집교육

전국대학 기자들과의 교류

- 제주대신문사 -

위험천만한 학생생활관 벽타기

출입통제 피해 숙소 진입... '안전 사고' 화근

학생생활관 출입통제 시간대에 창문이나 베란다를 통해 출입하는 학생들이 있어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출입통제 시간대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이다. 공부나 모임 등으로 출입시간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창문이나 베란다로 출입하는 점이다. 벽에 '밟고 올라가지 마세요'라는 경고문구가 붙어있지만 소용이 없었다.

문제는 이런 출입방식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학생기숙사 3호관은 사고위험이 높은 건물구조다. 1층 창문 아래에는 폴리카보네이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유리 대신 천장 연결통로에 사용된다) 지붕이 설치돼 있다. 일부 학생들은 이 지붕을 밟고 1층 창문으로 출입하고 있다. 지붕 아래에는 고시원이 위치해 있다. 학생들이 지붕을 밟고 올라가다가 부서지면 자칫 한 층 높이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미 폴리카보네이트의 일부는 파손됐다. 생활관 측은 임시로 파손된 틈을 테이프로 막고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위험합니다. 파손 보수중입니다. 밟고 올라가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출입통제시간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고시원 지붕을 밟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려다가 지붕 유리창이 파손되고 말았다.

쓰여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건물 벽에 설치된 에어컨 선반을 밟고 올라가 2층 입터(베란다에 있는 휴게실)로 출입하기도 한다. 심지어 2층 샤워실에 달려 있는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간 흔적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출입에 따른 소음

으로 잠을 자고 있던 학생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회계학과와 한 학생은 "새벽마다 발생하는 소음에 일년 동안 시달려 왔다"며 "적어도 2시까지의 자유를 게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항의글이 올라왔다. 문대욱 씨는 게시판을 통해 "1시부터 5시까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다"며 "며칠 전에 창문이 열려있어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생활관측은 지난달 25일부터 남학생 기숙사 3호관의 1·2층 입터와 세탁실 창문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잠고 있다.

오승남(학생생활관) 씨는 "정문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생활관에 들어갈 수 있지만 경비에게 얼굴이 확인되고 벌점을 받기 때문에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새벽에 출입하는 일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소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당연히 규정대로 벌점을 받아야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관 측은 귀관시간을 새벽 2시로 변경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체인식 출입시스템 도입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생들은 생활관에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단, 출입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고용희 기자

신입교원 집중 워크숍

교수학습센터 15일부터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이동철)는 신규 임용교수 16명을 대상으로 '신입교원 집중 워크숍'을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국제교류회관에서 운영한다.

워크숍에는 대학의 주요 기관 안내를 비롯해 교수법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마이크로 티칭 교수법 컨설팅'은 신규임용교수들이 직접 수업을 시연하고 전문가가 교육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컨설팅트는 이재경(숙명여대), 윤희정(서강대) 교수가 담당한다.

또 '선배가 안내하는 제주대학 200% 즐기기'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타지에서 제주에 내려와 정착한 선배 교수가 타지에서 온 신입 교수들에게 자신의 체험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제주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지식에서부터 '제주 맛집'에 이르기까지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궁금증들을 해결해주는 시간이다.

고용희기자

제주광어사업 심포지엄

'제주광어브랜드 사업단'

제주대가 광어브랜드 육성을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

제주광어브랜드육성사업단이 지난 1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광어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임근형 푸드윅 제주지사장은 '해의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사례', 고병현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수산식품산업 현황 및 발전방안', 고계성 경남대학교수는 '제주광어의 관광상품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해양과환경연구교수(이제희 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와 (주)제주광어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 및 경영 정보교류를 진행하게 된다.



(주)EMLSIS, 올해도 장학금 2000만원 전달

(주)EMLSIS에서 지난달 24일 전자공학과와 통신공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주)EMLSIS는 모바일 메모리 전문 기업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도양희)의 'EMLSIS트랙'에 참여하고 있다. 'EMLSIS트랙'은 반도체 분야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

업이다. 장학금 수여를 비롯해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사원제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EMLSIS은 EMLSIS트랙에 따라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제주대에 기탁하고 있다.

아래는 장학생 명단. ▲A급=전상민(전자공학 3), 허광익(전자공

학 3), 박민철(통신공학 3), 서영준(통신공학 3) ▲B급=강행진(전자공학 2), 김민섭(전자공학 2), 변광환(전자공학 2), 전해동(전자공학 3), 고경호(통신공학 2), 좌보람(통신공학 2), 박현민(통신공학 3)

고용희 기자

'100% 성공 취업 집중지도 프로그램'

취업전략본부 오는 7월부터 8개월간 시행

취업전략본부가 '100% 성공 취업 집중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집은 2010년 8월,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이메일(cncareer@jeju.ac.kr)이나 방문 접수로 통해 이뤄진다. 접수가 완료된 후 100~15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주요 우수 기업과도의 지역에 대한 취업확대를 목적으로 이뤄진다.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7월 5일부터 약 8개월간 집중 취업지도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단계-취업 아카데미 교육(집중강좌) △2단계-전문가 접수를 통해 이뤄진다. 접수가 완료된 후 100~15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3단계-온라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4단계-기업체 추천 △5단계-개인별 불합격 원인 분석

맞춤기업 추천, 재실시 △인재연검 및 취업성공 사례집 발간의 총 6단계로 구성된다.

취업전략본부 이창수씨는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75.8%의 취업률을 달성했다"며 "대우증권, (주)대상, 뉴시스, NH투자증권, LG이노베 등 유명기업이나 도외지역 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건강증진센터, 금연 참여자 모집

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문두)의학과 교수와 제주보건소가 금연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학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선착순 45명을 오는 9일까지 모집한다.

금연사업은 15명씩 3기로 나눠져 5주에 걸쳐 건강증진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1주차 방문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교육과 기초 설문 조사, 니코틴 의존도 평가, 혈압, 일산화탄소 측정한다.

강보배 기자

■ 인터뷰 ■ 이병걸(제주대 씨그랜트사업 부단장)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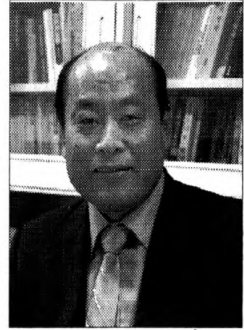
제주국제요트학교 김녕리에 내달 문열어

"천혜자연 활용 레저산업 성장 기대"

제주대학교 씨그랜트 사업단과 제주특별자치도, 김녕리가 지난달 29일 구좌읍 김녕요트마을에 제주국제요트학교를 개교했다. 국제요트학교는 4월중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5월 1일부터 수강생을 받고 운영된다.

요트산업의 진흥과 전문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요트학교는 김녕리의 200㎡ 규모의 요트클럽하우스와 딩기(Dinghy) 요트 10척, 크루저(Cruiser) 요트 2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에 초대 국제요트학교장을 맡은 제주씨그랜트사업단의 이병걸 교수를 만나 요트학교 운영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요트학교를 개교하게 된 계기는

"제주의 해양레저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해양관광산업의 꽃이라는 요트산업이 부진한 상황이다. 요트학교는 이러한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요트인구의 저변화와 요트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요트학교의 개교 목적은

"요트레저와 전문가 교육 운영이 주요한 목적이다. 요트학교는 기본적으로 요트지도자 과정과 레저스포츠 과정으로 나뉘 수 있다."

요트지도자 과정은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중에서 요트 전

문코치가 왜 요트를 운전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다. 레저스포츠 과정은 요트를 취미생활로서 즐기기를 위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요트학교는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나

"요트학교는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 과정으로 나뉜다. 초보과정은 주로 요트를 처음으로 입문하는 과정으로 요트의 운전, 안전교육 등을 배운다."

중급 과정은 요트를 직접 운전하면서 요트를 가지고 바닷가에 직접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과정이다."

고급과정은 지도자과정으로 요트코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요트를 가르치는 과정을 배우는 것으로 구조, 응급, 운전 등 다양한 과정을 배운다."

-수강대상과 어떤 교육자가 있나

"교육자에는 국가대표급 전담코치들이 일반인과 초중고 꿈나무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초중고학생의 경우 요트 선수가 되거나 혹은 전문지도자로 나설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다. 또 일반인들에게는 요트를 가지고 취미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한다."

박종건 기자

미국 SEIT와 양해각서 체결

관광레저인재센터 상호교류 협력 추진

관광·레저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센터장 장성수 관광개발학과 교수)가 미국 SEIT와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학생 및 교수, 연구원 교류, 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술대회 공동 주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SEIT는 30개국 이상 500명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국제학회를 매년 개최하는 저명한 기관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학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인재양성센터는 이와 함께 SEIT 주관으로 내년에 열릴 예정인 국

제학회를 제주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성수 센터장은 "SEIT가 주관하는 내년 국제학회를 제주에서 공동 주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며 "국제학회를 공동으로 주최할 경우 개최할 경우 제주의 MICE산업 발전은 물론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재양성센터는 제주의 관광·레저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MICE 기획·유치, MICE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3회 제주아르페지오

정기연주회

13일 아라뮤즈홀

박순방(예술학부 석악전공) 교수의 주도로 제3회 제주아르페지오 정기연주회가 오는 13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는 심희정(예술학부 피아노전공)교수를 비롯한 제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8인이 소풍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소풍의 대표곡들을 연주한다.

공연의 모든 수익금은 형편이 어려운 예술학부 음악전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강보배 기자

행정이 나서서 도서관 서적 훼손 막아야

사진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러 중앙도서관을 찾은 적이 있었다. 선배가 권해 준 책을 빌리고 나와 보니, 속 페이지들이 거의 다 찢어져 건물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어떤 학생이 책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것인지 황당했다. 그리고 불안해졌다. 이렇게 망가진 책을 다시 반납하면 큰 오해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이 좋아서였는지 반납 과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됐다. 속지가 다 찢겨져 나간 책을 반납해도 아무런 이야기는 없었다.

기자는 이 경험을 통해 훼손된 도서관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하고 싶어졌다. 예술도서관의 경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한 도서관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사진자료가 필요할 때, 복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의로 찢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예술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훼손된 도서관도 또한 많았다. 영어교재나 수학문제지인 경우 다음 대여자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가 미

리 풀어져 있었다. 또 전공도서관에서는 형광펜이나 색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어 정신이 산만할 정도였다. 또한 공부할 때 연필로 중요한 부분을 여러 번 밑줄을 치게 되면 학생이 책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경우도 있었다.

물론 도서관 훼손의 일차적 이유는 이용자들의 잘못된 도서관 사용 의식에서 비롯된다. 대학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를 이와 같이 만든다는 것은 대학생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영정보학과 3학년의 한 학생은 "도서관의 책들을 훼손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책들을 함부로 쓰는 것은 도서관에서 책을 회수할 때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 회수시 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무도 어떤 이용자가 도서관을 훼손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사실 이런 도서 훼손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를 수년째 인식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자체책가 같은 해결방안이 있다. 하지만 최근 도서관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다.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의식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도서관에서 도서 훼손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학생들의 의식을 문제 삼기보다는 의식개선에 앞장서는 도서관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일거다.



백종수 기자

탈락업체 반발에 졸준위 “선정과정 문제 없다”

학교당국도 이의제기에 재확인 거쳐

▶1면에서 계속

졸업앨범 업체 선정과정은 2차로 진행됐다. 보통 한 번에 끝나는 졸업앨범 공개입찰이 2차까지 이어진 이유는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2곳이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업체선정 어떤 절차 거쳤나

의문을 제기한 업체 측은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과 심사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 측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졸준위는 2차 앨범선정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재심사를 요구했던 두 업체는 2차 심사를 벌였음에도 여전히 공정하게 업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러한 졸업앨범 업체 선정 과정이 문제되는 이유는 졸업준비위원회 회칙 자체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졸준위 운영회칙에 졸업앨범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졸업준비위원장은 졸업준비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졸업준비사업에 관한 업체 선정권을 갖는다. (선정방법은 졸업준비위원회가 정한다)’로 나와 있다.

이 회칙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심사위원 구성방법과 심사기준이 현재와 같이 구성된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졸업준비위원회 소속 구성원인 4학년 과대표들조차 졸업앨범 업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선정됐는지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반발

심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두 업체는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선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위원 중 일부의 신상확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점수가 나와야 할 심사 항목에서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업체 사장은 “수 년동안 대학 앨범 입찰에 참여 해오면서 이같이 납득되지 않은 결과는 처음이다”며 “심사위원도 불명확한 상태에 공개도 하지 않았으며, 내용이 같으면 점수가 같아야 할 항목에서도 점수 차이가 난 점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졸준위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업체선정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수년동안 계속해서 졸준위위원장의 권한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기준을 정해왔다는 것이다. 졸준위는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이유로 심사위원으로 뽑힌 과대표들이 “혹시라도 업체와 유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부 과대표들이 편파적인 점수를 배정해 결과가 크게 바뀐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사위원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신상을 공개 할 시 심사위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심사 기준의 경우 두 업체 측이 생각하는 기준과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정용 졸준위원장은 “현재 심사기준을 표기해 두었지만, 심사위원이 업체를 평가할 때 수학적으로 모두가 같게 심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사업설명이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학교 당국의 대처는

이런 갈등양상에 학교 측은 어떤 대처를 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체선정에 대한 자율권이 학생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돈이 오고가는 민감한 부분에 있어 어느정도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차원에서 학교 측은 큰 관여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이번 업체 선정과정에서

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접수된 바 있어, 2차 심사에 참여해 감독을 배정해 결과가 크게 바뀐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 대학의 경우 졸업앨범 업체 선정이라는 과정의 민감성 때문에 대학 측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경북대의 경우 단과대 별로 학생회장들이 심사위원을 1명씩 추천해 학교 측과 같이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업체와 계약시 학생들이 부담한 간섭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학교에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며 “심사방법도 다양화하기 위해 일반인 학생들 100여명을 선정해 함께 심사하거나, 품평회를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경대는 졸업앨범과 관련한 사항을 처음부터 기성과 예산에 포함시켜 졸업앨범을 전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학교 측의 입찰업체 선정으로 보통 4~5만원 선이 되고 있는 졸업앨범의 가격을 천화 9천원에, 두 번째 해 1만5천원의 가격으로 낮췄다. 현재 제주대의 앨범가격이 4만5천원인 것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종건 기자

취업난으로 졸업유예자들 급증

장학금 분할납부 등 행정 배려 필요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유예학생들을 위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유예자가 처음 도입된 2006학년도에 14명이 유예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2007학년도 47명, 2008학년도에는 76명, 2009학년도 전기에만 64명이 신청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예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졸업을 유예한 학생은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다르게 납부한다. 10학점 이상을 신청 할

경우 등록금의 전액(4학년 2학기 기준)을 내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액을 납부하는 유예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교내 장학금이나 교외 장학금 지원 대상에도 유예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교내 장학금이나 교외 장학금 지원 대상에도 유예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교내 장학금이나 교외 장학금 지원 대상에도 유예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금과 관련해 학생복지과 관계자는 “유예학생의 경우 장학금 기준에 따른 경쟁 대상이 없는 상황이다”며 “유예학생끼리는 인원이 부족하고, 4학년과는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과 관계자는 “유예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제각기다보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며 “다음 학기부터는 유예학생 중에도 전액납부 대상 학생에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기업연계 고용예약 학생 모집

IT인력양성사업단, 현장연수 기회 제공

IT전문가 인력양성사업(사업단장 도양희 전자공학과 교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융합형 IT Specialist 인력양성사업에서 기업연계 고용예약 지원 기업과 학생들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제주지

역 디지털콘텐츠 전략산업분야 ICT 기업이고, 학생의 경우 학사, 석·박사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인턴을 채용해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대상기업에는 연수기간 동안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정규직 채용으로 이뤄질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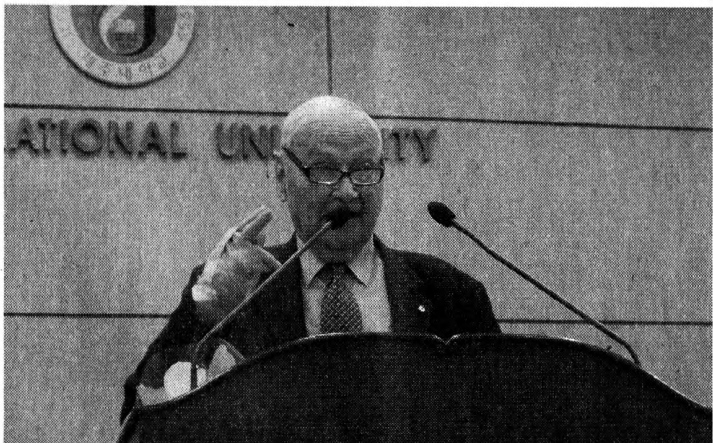
접수는 수시로 모집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IT전문가 인력양성사업단(754-2483)으로 연락하면 된다.

IT 전문가 인력양성사업단의 담당자는 “고용예약형 인턴십을 통한 제주 도내지역 ICT 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관련 인력의 취업률 상승, 인턴들의 월급 상승 등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제주에 세계환경대학 설립해야”

평화섬정책포럼서 모리스 스트롱 전 UN 사무처장



제주대 세계환경대학교 설립위원회와 (사)세계섬학회 주최로 열린 제1회 평화섬정책포럼이 지난날 29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모리스 스트롱 UN 전 사무처장은 ‘세계환경시대의 제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스트롱 박사는 “환경과 관광은 제주도에 특별하고도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며 “제주도가 오는 2012

년 열리는 세계환경올림픽을 유치한 데 이어 세계환경대학교까지 설립한다면 세계 환경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위치적 장점과 제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머스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환경대학을 설립하기에 충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환경대학이 설립된다면 석사과정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점진적으로 몇 개의 분야에 박사 과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뒤 “핵심 교수진은 다른 대학교나 기구로부터 객원교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대학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설립 초기에는 국제컨벤션센터나 제주평화연구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유엔 산하 국제평화훈련센터(JITC) 제주설립을 기념해 카를로스 로페즈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사무총장 특강이 국제교류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로페즈 사무총장은 ‘심각하고 다각적인 지구적 위기에 있어 아이덴티티의 문제(원래 : Are we listening? Identities facing a deep multi-faceted global crisis)’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보배 기자

대한토목학회상

이동욱 교수

이동욱(토목공학과) 교수가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토목학회에서 대한토목학회 학회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우수학회활동과 연구업적 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 날 행사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대한토목학회회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아라

아라

난방시간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 비만 오면 물바다

○... 등록금 아깝지 않나

○... 난방 좀 켜주세요

얼마 전 봄비에 중앙도서관 계단 입구 등 캠퍼스 곳곳이 물바다로 변해 신발과 바지단이 흠뻑 젖어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불만.

이제는 캠퍼스 내에 비가 고이지 못하도록 하는 배수구 숫자가 부족할뿐더러 제대로 관리도 이뤄지지 못해 막혀있어 곳곳이 물웅덩이로 변해기 때문.

비가 많이 고이는 곳에 적절한 배수구 설치를 비롯해 기존 배수시설들이 막히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

학생수가 많은 대형강의에서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속출해 문제.

잠을 자는 것은 기본에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문자를 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는 학생도 있어 학생들의 의식개선이 시급.

등록금 동결을 외치던 학생들이 정작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수업시간은 허비하고 있어 어안이 방방하지만, 등록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수업을 열심히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

날이 춥거나 저녁시간이 되면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이 덜덜 떨며 추위를 느낀다고 불만.

야간강의 시간에는 라디에이터를 끄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크지만 학교 측에서는 규정 때문에 계절이 변하거나 적정 시간이 지나면 라디에이터를 틀어줄 수 없다고 답변.

학교 측의 답변도 수긍이 가지 만,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변화와 일교차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난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

미역씨 추출물 비만개선에 효과

김세재 교수팀 국내 특허 등록

김세재(생물학과) 교수 연구팀이 고리매과 미역씨가 성인병 예방용 식의약품 소재로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미역씨 유래 추출물이 비만 등 대사성 질환 개선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 지난해 12월 ‘비만 개선물 조성물’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받았다.



강보배 기자

국어문화원 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발간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교수)이 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2편 ‘각신 이끄곡 서방은 갈곡’을 발간했다. 김미진 국어문화원 연구원이 채록하고 전사한

이번 책은 중간간마를 용감동에 사는 권상수 할아버지의 생애를 그렸다. 책은 권 할아버지의 생애를 통해 제주의 결혼, 자식키우기, 장례, 농사, 의생활과 식생활 등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은 권 할아버지의 제주어를 그대로 담았으며, 표준어로도 대역했다. 또한 제주어와 제주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도 달려 있다. 김미진 연구원은 “전사와 채록 작업에 꼬박 1년이 걸렸다”며 “권 할아버지의 재밌는 제주어 표현을 통해 다양한 제주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어문화원은 제주어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한 해에 한 번씩 제주어 구술자료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박종건 기자

제30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언론·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56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록문학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소설(1인 1편)
- 접수마감일시 : 2010년 5월 17일(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언론·출판센터 행정실 (취업전략본부 3층)

※백록문학상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물을 동시에 제출

- 발표 : 제주대신문 835호(2010년 6월 9일 발행 예정)
- 시상내역 : 각 부문 당선작(50만원), 가작(30만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서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서틀버스 운행

소비조합 알아보기

학생후생복지 · 장학기금 마련 앞장 ... 구내식당 적자는 골칫거리

매년 적자에 가격 인상론 대두?

“소비조합이요? 그 곳이 어떤 일을 하나요?”, “소비조합이 우리학교에도 있나요?” 소비조합에 대한 물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은 이렇다. 소비조합이 1983년 만들어져 벌써 27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우리대학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소비조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학교에 소비조합이 구성돼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이에 제주대신문에서는 소비조합이 어떻게 구성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타 대학의 사례도 조사해 봤다.

-편집자 주

우리 대학에 소비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1983년에 제주대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해 아래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처음으로 구성됐다.

우리학교 소비조합은 총장이 이사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조하는 이사에 각 처장들을 비롯한 교수들로 소비조합 이사회가 이뤄져 있다. 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요 학생자치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소비조합은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받고 외부 업체들의 과도한 가격책정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은 학내 구성원들의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장학기금 마련 등에 사용되고 있다.

소비조합 어떻게 운영되나

현재 소비조합은 학생회관에 구내식당을 비롯해서 한라홀, 아라홀, 종합매점, 해양대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교내에 배치된 모든 자판기 등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들은 학내구성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소비조합은 현재 한라홀, 아라홀을 비롯한 매점들과 교내에 배치된 자판기 수익금으로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구내식당의 경우는 2008년에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 학생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소비조합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현재 타 대학에 비해 음식의 질도 좋고, 가격도 싼 편”이라고 말했다. 적자를 보면서까지 음식의 질을 높이는 이유는 구내식당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싼 가격에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소비조합에서는 또 다른 이익금으로 은행이자 3300만원의 이윤을 내고 있다. 여기서 은행이자란 소득금이 은행에서

금리가 적용이 돼 이자가 붙은 것을 말한다. 이 돈은 발전기금 장학금에 1000만원, 시설적립금으로 나머지 금액 전부가 투자된다.

시설적립금은 교내 소비조합의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 미리 적립을 해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에 구내식당 LCD TV를 구입해 설치한 것이 있다. 혹은 조합 내 시설들의 형광등 교체를 할 때에도 쓴다.

현재 소비조합이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는 커피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라면 자판기들이 있다. 교내 자판기들은 100여 대가 있는데 이것 또한 소비조합의 한 기관으로 당연히 이익금을 내고 있다.

학생복지과의 관계자는 “현재 구내식당은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그 외의 소비조합에서 이 적자를 채운다 하더라도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법을 찾고 있다. 그 대안으로 구내식당의 식비를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학교는 생활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지 않고 소비조합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로 생활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도 국유재산사용료를 내야하며 소비조합과 생활의 설립 이후에도 재정적인 면에서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자체 결론을 통해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타 대학의 경우는 어떻게

타 대학의 경우는 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 돼 있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은 대학에서 소비·문화·환경 등의 생활을 보다 나은 생활로 바꾸기 위해 대학생활의 직접 당사자인 구성원 스스로 조직한 협동조합이다. 즉, 스스로가 생활에 돈을 내는 출자자이면서 스스로가 운영자이고 스스로가 이용자인 협동의 단체라 정의할 수 있다.



소비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라홀에서 학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생활에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이 참여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모든 대학구성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학내 식당 및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은 조합원들이 기금을 모으고 그 재정을 운영 매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익금은 학내 복지활동 등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최초의 대학 생활은 1988년 서강대학교에서 시작돼 현재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강원대, 전남대 등 9개의 국립대와 많은 사립대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학생, 교직원들이 1만 원의 출자금으로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13개의 식당을 비롯한 매점, 서점, 문구점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모든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생활의 활동으로 학생식당의 운영 시간 연장, 대학발전기금 출연, 식당 신상품 개발, 식당 시설 및 환경 개선 등 학생 복지환경이 향상됐다.

연세대는 양질의 상품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생활이 발족됐다. 현재 연세대 생활에서는 서점, 매점 등 15개의 시설을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맛나심을 비롯한 9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학생식당인 맛나섬, 고를섬, 부름섬이 위탁 운영되고 있지만, 생활의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식당 운영은 생활과 협의 하에 결정된다. 생활과의 협의 없이

가격인상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운영과 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후생복지회관 건립 기금 적립, 총학생회 생활 장학기금 적립, 학생 비품구입 지원비(정수기 설치, 사물함 설치), 교수 연구지원비, 직원 교육훈련지원비, 시설 보수비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총학생회 생활 장학기금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이 돌아갔다.

한국외대(용인배움터)는 식당 운영을 생활이 맡고 있다. 한국외대 생활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거나 외부업체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5개의 식당 중 2곳을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3곳의 식당은 외부 업체가 임대 운영한다. 위탁 운영되는 3곳의 식당 역시 생활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활활동을 통해 마련된 장학기금을 내고 있다.

동국대의 경우 1994년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 5개의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활 조합원의 경우 생활카드를 발급해, 생활이 운영하는 서점, 문구점에서 마일리지도 적립해준다. 적립된 마일리지의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세종대가 지난 2001년부터 세종대학교 내의 복지사업을 맡아온 세종대 생활의 학내 복지사업권을 일괄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학생들이 이에 반발해 나서면서 생활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백종수 기자

유망 학과로 탈바꿈한 해양산업경찰학과

해양경찰 임용 위해 전공세분

사회변화 흐름 반영... 경쟁률도 높아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소중한 목숨을 구조하고 우리나라의 해상치안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 중국어선 등이 우리나라 EEZ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해양경찰’의 필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제주대에도 올해 ‘해양산업경찰학과’가 신설됐다. 기존의 해양산업공학과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1965년 수산학과로 시작했던 이 학과가 이제는 해양산업분야 인재와 해양경찰을 양성하는 곳으로 발돋움했다.

안장영(해양산업경찰) 학과장은 “학생들이 해양경찰로 진출하는 추세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며 “권동욱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윤학수 해양경찰청 차장 등도 모두 제주대를 거쳐 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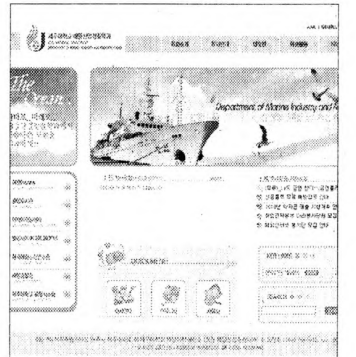
해양산업경찰학과 신설로 학생들이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취업문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해양산업경찰학과를 졸업하면 해양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해경학과’ 모집군에 지원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모집군이다.

그간 제주대에 해양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결코 지원할 수 없었던 모집군이기도 하다.

해양경찰 채용시험에 맞춰 교과과정도 개편됐다. 기존에 개설됐던 해사영어, 해사법규를 비롯해 국제법, 형사소송법, 해양경찰학 개론, 수색구조론, 형법총론, 경찰행정법, 헌법개론 등 이 마련됐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간부후보 모집군과 공채순경 모집군의 필기시험 필수 과목이다. 또한 해사영어와 해사법규도 해경학과 모집군과 해기사, 전경 모집군의 필수과목이다.

학생들은 해양산업경찰학과와 교과과정을 밟으며 자연스럽게 해경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새로 개설된 해양산업경찰학과 홈페이지이다. 학과 소개와 교과과정 등을 볼 수 있다.

다.

뿐만 아니라 ‘수색구조론’은 학생들이 해양경찰로 활동하게 되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이다. 이 분야에는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현직 해양경찰의 특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해양산업경찰학과와 수시 경쟁률은 8대 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시모집에서도 3.8대 1로 전체 정시모집 경쟁률인 3.4대 1을 웃돌았다.

안장영 학과장은 “학과 신설 후 경쟁률이 높아져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게 됐다”며 “앞으로 제주대 학생들의 해양경찰 진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해양산업경찰학과에 입학한 김필성씨는 타지에서 ‘해양경찰’이라는 직업의 비전을 보고 제주도까지 내려오게 됐다고 한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좋은 해양경찰이 되는 것이 꿈”이라며 “졸업하면 해경학과 모집군에 지원할 수 있는 등 취업문이 넓어서 좋다”고 말했다.

취업 한파로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스펀트 쌓기에 몰입하고 있다. 해양산업경찰학과 신설은 해양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숨통을 터준 일인 것 같다. 제주 해안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나갈 제주대인을 기대해본다.

고용희 기자

제25대 총여학생회 인터뷰 - 회장 전미희 부회장 문주리

“여학생 취업 위해 여성 CEO 특강 마련”

-출범소감

“지난달 8일 출범식을 마쳤다. 다행히 사람들도 많이 오고 활발한 분위기 속에 마칠 수 있었다.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세이호 총여학생회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맙다. 아직도 총여학생회라는 기구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학생들이 총여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겠다.”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우선 출범소감에서 이야기 했듯 총여학생회를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총여학생회가 꼭 필요한 기구라는 점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

더불어 요즘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취업’이다. 때문에 이번엔 취업과 관련된 교과목을 만들어 남녀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바로 ‘옛지있게 학점받자’라는 이름의 공약이다. 커리큘럼은 여성 CEO 등의 특장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고 여성도 정치·사회에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을 남녀 모두에게 보여줄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조금씩 학생들의 편견을 바꾸고 취업까지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과목 개설은 현재 취업전략본부와

논의 중이다. 빠르면 다음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복지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사업은 ‘복지’이다. 공약이었던 순환버스 시간표는 이미 다 부작을 했고, 산부인과, 피부과, 한의원 검진권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검진권은 남학생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산부인과 검진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어머니께 산부인과 검진권을 드린다면 신청하는 남학생들도 많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중앙도서관 여학생 열람실 개설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좋은 취지에서 시작 하려고 했었지만 설문조사결과 찬반이 거의 5:5 비율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일단 보류중이다.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약에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학생휴게실 공모전은

“그동안 여학생휴게실은 총여학생회의 생각만으로 꾸며진 상태였다. 이번엔 여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휴게실을 꾸미기 위해 휴게실 공모전을 시작하게 됐다. 단대별로 공모를 했고, 이번달 7일에 공모 PPT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총여학생회가 심사를 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공모를 한 학생에게 상금을 주고 선별된 내용에 따라



오른쪽부터 전미희(윤리교육 3) 총여학생회 회장, 문주리(가정관리 2) 부회장.

여학생 휴게실을 바꿀 것이다. 비록 지금은 신종인종플루 때문에 여학생휴게실이 폐쇄된 상태이지만 문을 여는 대로 변화된 휴게실을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생리공결제 악몽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한마디

“학생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용희 기자

제26대 동아리연합회 인터뷰 - 회장 정승용 부회장 김지철

“학생 밀착 동아리 활성화 나서겠다”

-출범식을 마친 소감은

“첫 시작을 잘 마쳤기에 뿌듯하다. 출범식에서 교사를 지내거나 같은 절차상의 불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낸 것에 대한 평가 좋아서 감사할 따름이다.”

-앞으로 어떤 동아리를 만들 것인지

“가장 동아리다운 모습으로 제주대학교의 문화중심에 서도록 역량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다. 그리고 동아리 간의 결속력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동아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싶다.”

-1년 동안 추진할 공약들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있는가

“동아리의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동아리 간의 교류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것이기에 그만하면 하면 된다’라는 처리 방식보다는 ‘진정 동아리들을 위한 지원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실질적인 공약은 3월 내내 펼쳐진 동아리 홍보지원이다. 동아리의 신입생 유치를 돕기 위해 시행됐다. 3월을 동아리의 달이라고 간주해 학생회관 전체를 현수막과 모바일 등으로 장식했다. 또한, 홍보부스만 깔아준 채 모든 척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아리들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리연합회 안내데스크를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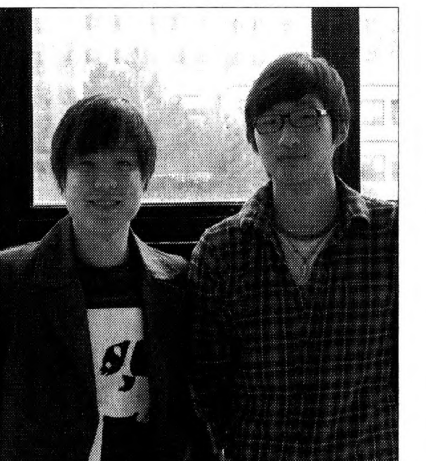
동아리소개서 개편 역시 실질적인 지원이다. 기존의 두꺼운 동아리소개서를 보면 수많은 글자로 가득 채워져 총 100페이지에 가까운 소개 글들이 실려 있다. 신입생들이 동아리소개서를 읽고 지루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페이지 수를 줄였다. 총18페이지에 모든 동아리 소개를 실어놓고, 컬러인쇄물로 교체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다.

‘교류활성화’를 위한 공약 중 한 가지는 4월에 추진될 ‘전자게시판 설치’를 통해서 동아리 행사들을 알리겠다. 그래서 학생회관을 드나드는 학생들이 각 동아리들의 행사들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간의 교류가 원활함에 대한 기대 효과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각 동아리에 배포될 동아리 캘린더 역시 동아리들끼리 서로의 행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당 날짜에 찾아가 격려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최근 학생들이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동아리 위축 문제는 경제난, 취업난 또는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된 개인주의, 성공주의의 만연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대안은 위에서 언급한 교류활성화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 강한 매력과 역량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동아리들이 서로 협력하려



왼쪽부터 정승용(경영 3) 동아리연합회장, 김지철(전자공학 3) 부회장.

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동아리 내의 결속력은 강했으나 타 동아리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했다. 동아리연합회가 동아리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최근 동아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더욱 자랑스럽다. 동아리 연합회가 아직은 서툰더라도 진실된 마음과 태도는 동아리의 성장을 위한 거름이 될 것이다.”

백종수 기자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할 병으로 인식해야

1. 서언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과 함께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이나 안타깝다. 왜냐하면, 자살은 대부분의 경우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폭력, 범죄, 일탈행위, 인터넷 중독, 게임중독, 도박 중독 등 셀 수 없는 이 시대의 문제점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많은 부분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본 기고에서는 이 많은 행동의 문제들의 공통되는 질병이 될 수 있는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울은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 그렇듯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에게나 오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울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트레스 단독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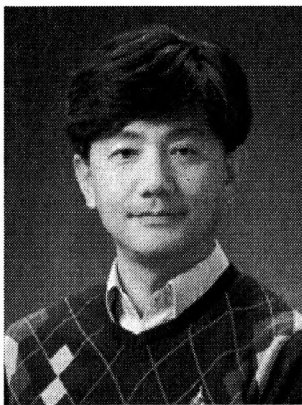
우울증은 그 원인이 단일한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학적 모델(Biopsychosocial Model)의 틀에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인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이 동시에 취약한 경우에 우울증이 생겨난다고 이야기 한다.

일관성 쌍둥이 중 한명이 우울증일 경우 나머지 한명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50%, 이란성일 경우는 10-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쌍둥이 이외에도 주변에 우울증에 걸려있는 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유전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1) 생물학적 원인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이론들이 신경생화학적 원인이다. 우울증과 관련된 뇌의 신경생화학적 이상으로는 우리 몸의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여러가지 상황들, 그외에도 도파민, 아세틸콜린, GABA, 바소프렌신, 소마토스타틴의 이상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이상들이 보고되는 것은 우울증이란 단일한 한 가지 이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의 조합으로 생겨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대의 우울증 치료는 이 신경생화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 시행되고 있다. 위의 신경생화학적 이상 이외에도 내분비 계통의 이상이 우울증의 원인일 것이라는 증거들도 있다. 우



김문두 의학파 교수

울증 환자들에서 골티홀의 과도한 분비, 갑상선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불면증인 경우

너,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에서 부터 직업상심, 경제력 상실, 건강상심 등이다.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1세 이전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실제적이거나 상징적인 대상의 상실이 있거나, 상실한 대상에 대한 분노나 공격성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못하여 자신에게 향하는 경우 우울증이 생길 심리학적 소인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성격측면에서는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론 벡이라는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상도 자신을 못살게 굴거나 요구만 하는 대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미래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인지적 왜곡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왜곡을 통해 우울증이 생긴다고 하였다.

실질 취를 몰이 찬 수조에 넣어두면 처

약물치료는, 위에 기술한 신경생화학적인 변화에 근거하여 이 변화를 돌이킬 수 있는 약물들이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듯이 신경을 말리거나 죽여서 뇌손상을 일으키거나 바보로 만드는 약물들이 아니다. 오히려 우울증의 치료 효과 외에도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뇌신경을 보호는 약물들이며, 단지 과거에는 약을 먹고 나면 환자가 멍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하루 종일 잠이 오거나 몸이 틀어지는 등의 부작용들이 많아서 복용하기 힘이 들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다.

앞서 말한 경미한 우울증 이외에는 반드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은 신경의 재생과 관계있으므로 감기약처럼 복용하고는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복용 후 2-3주가 지나면 호전이 되기 시작된다. 증상 호전 후에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지치료가 필요하고 그렇지 하지 않는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 중증환자가 마비가 돌아와도 매우 천천히 돌아와서 약 2년에 걸쳐 좋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기타 생물학적 요인을 치료하는 것으로, 광선치료, 전기경련치료, 자기자극술도 있지만 공간의 부족으로 여기서 기술은 생략한다.

다음으로 환자의 심리학적 요인을 치료법으로는 정신치료를 들 수 있는데, 우울증에서 가장 단계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신치료는 인지치료이다. 앞선 아론 벡이라는 학자의 인지이론에 근거하여 환자의 부정적 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재조정하는 치료이다.

2) 정신치료

정신치료는 치료자와 1:1로 개인적인 면담을 하여 우울증을 일으키도록 한 기저의 심리적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해가는 치료이다. 이는 정기적, 장기적,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제 주도의 경우에는 더 그러한데 정신과 의사 이외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되지 않는다.

이는 정신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도 정신분석을 받아야 하고 이 정신분석 수련에는 적어도 4-5년 이상의 전문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일반 상담을 정신치료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가족치료는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가족의 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가족도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가정환경, 부모의 성격이나 양육방법 등이 청소년의 우울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연예인 자살, 우울증 극복 못해 선택

신경생화학적 이론 최근 각광 받아

가족도 치료에 참여해야 바람직

가 많으므로 우리 몸이 수면을 조절하는 생체리듬이 교란된 것이 우울증의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뇌의 구조적 이상, 면역의 저하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음에는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해업을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게 되더라도 수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포기를 하여 수업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고 이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이를 우울증 형성의 근거로 보는 것이 행동이론이다.

2. 치료

치료는 위의 원인에 근거한 치료를 하게 된다. 먼저 경미한 우울증의 경우에는 신경생화학적 변화가 약하다고 보고 간단한 상담이나 친구나 선생님들, 가족들과의 대화만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데, 크게는 약물치료, 광선치료, 전기경련치료, 자기자극술과 같은 생물학적 치료, 정신치료, 가족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와 같은 정신치료, 기타 기본적인 건강유지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약물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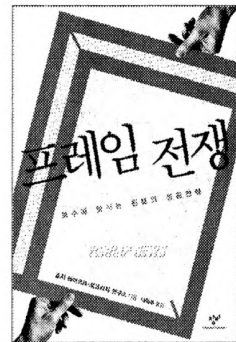
2) 심리사회적 원인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우울증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해도, 스트레스 자체가 분명히 우울증의 증상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하다. 특히 처음으로 우울증이 생길 때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앞서 말한 신경생화학적 변화가 유전적 소인 등과 결합하여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신호전달체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비로소 증상이 발현하게 된다. 물론 생물학적 소인이 심한 경우는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이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여러가지 스트레스 중에서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실제로는 상징적으로든 ‘상실’이다. 예를 들면 배우자, 부모, 자

한권의 책

잃어버린 말찾기, 새로운 세상살기



『프레임 전쟁』

- 조지 레이코프 · 로크리지연구소
지음, 나익주 옮김.

2006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5학년 학생들과 함께 했던 활동이 생각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사람들이 세금이 비싸서 울고 있다”고 설명을 붙인 한 학생의 그림을 빼고는, 놀랍게도 35명 학생들이 ‘태극기’ 앞에서 ‘국가에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을 표현했다.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림이 교실 벽면에 장식된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다. “1학년부터 나라 사랑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잘 못 받았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애국심’이란 다음 중 어느 것일까?

① 애국자들은 대통령이나 정책에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국가가 약해진다. 비밀스럽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정부 정책을 폭로하는 것은 반역이다.

② 애국심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활동 할 때 나타난다. 동의하지 않는 정책과 이런 정책을 장려하는 지도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애국심은 ①이다. ①과 관련한 관점이나 틀이 반복되어 학습되었다. 그래서 5학년 아이들의 그림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한단지만 결국, 학습된 일정한 틀에 따라 생각하게 되는 법이다. 따라서 어떤 ‘사고 틀’을 학습시키느냐가 어떤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겠다.

조지 레이코프와 로크리지연구소가 지은 『프레임 전쟁』(나익주 옮김, 창비)은 ‘세상 보는 틀’ 혹은 ‘세상 살아가는 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하게 한다. 이 책은 보수주의의 가치가 만연한 현실에서 진보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쓴 책이다. 즉, 보수주의의 ‘프레임’에 갇혀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보주의의 ‘프레임’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 주고 이를 익숙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간 보수주의의 프레임에 의해 빼앗긴 많은 ‘단어’들과 ‘가치’들을 회복하는 길은 진보주의의 프레임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우리 마음의 대본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마음 속에 이미 설정된 대본에 맞추어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 프레임은 “우리 아이디어와 개념을 구조화하고, 사유 방식을 형성하며, 심지어 지각 방식과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프레임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의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의 정체를 드러내고

보다 합리적으로 자신의 프레임을 다듬는 것이다.

모호한 프레임의 사용 혹은 일관성 없는 프레임 사용에 관해 이 책에서는 ‘이중개념주의’란 용어를 들어 설명한다. 진보주의의 세계관과 보수주의의 세계관은 상호 배타적이지만, 인간 두뇌에서는 두 세계관은 나란히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진보적인 것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면서도 시민적 자유에 대해서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중도’란 있을 수 없다. 서로 다른 전장에서 현저하게 대립하는 두 이념을 사용하는 것은 ‘이중개념주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향하는 노선에 맞게 프레임을 설정하고 선호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특정 지배 관점에 사로 잡히지 말고,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 보아라”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그렇기에 이 책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책의 미덕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용법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프레임’에 갇힌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한다는데 있다. 너무나 익숙해 있어 자연스러웠던 우리 일상이 우리가 학습한 ‘프레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프레임을 재구성하여 ‘잃어버린 단어’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국가, 자유, 애국, 가족, 생태, 법, 생명, 시장에 관해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프레임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올곧은’ 의미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표현들을 명시적으로 반복하여 익숙하게 해야 한다. ‘애국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외치고 반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애국자이다. 이 것이 바로 정부가 법원 명령 없이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에게 자행하는 감시 행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류현중 교육대학 사회교육전공 교수

세계인명사전 등재 교수 인터뷰 ③ 조정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정보윤리 전제돼야 과학 진보”... IT기업에 관심가져야

교수연구실에서 만난 조정원(컴퓨터교육과)교수는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세계인명사전 등재에 대해 먼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등재는 됐지만 스스로 변한 것은 별로 없다”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냥 제주도가 좋았어요”

자신의 운명에 이끌렸을까? 조정원 교수는 제주대에 교수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웬지 모르게 제주도가 좋았다고 한다.

“제주 출신이 아니더라도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제주라는 섬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분위기나 자연을 칭찬했다.

조 교수는 이제는 “육지라는 말이 익숙하고, 제주도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며 자신도 “제주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컴퓨터는 정직하잖아요”

그가 컴퓨터를 전공하게 된 것은 자신이 작업한테로 보여주는 컴퓨터의 정직함의 이끌림에서였다.

그는 대학생활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컴퓨터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조 교수는 “밤새 작업하다 새벽녘에 해를 맞이할 때면 패감이 끝내줬다”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꿈꿨다. “좋은 교사로 있고 별로인 교사로 있겠지만 다 배울점이 있다” 그는 학창시절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 올바른 교사의 상을 그렸다.

그런 그의 꿈과 컴퓨터에 대한 사랑이 만나 컴퓨터 교육 전공에 길에 들어섰다.

조 교수는 과학의 발전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에 앞서 과학자의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악습이나 게임 중독 등 많은 문제점들도 야기하고 있다”며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과연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하면서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학 발전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뤄지기도 하지만 작은 발전에서도 이뤄진다”며 “작은 과학적 성과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도 정보 윤리부문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 그동안의 정보 윤리부문이 악습이나 컴퓨터 중독 등의 역기능을 강조해 왔다”며 “정보 윤리라는 것이 단순히 나쁜 것을 하지말라는 것에 그치지 게 아니라 선함과 같은 좋은 기능을 권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최근 연구하고 있는 것들도 이를 실증하기 위한 연구라고 있다.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조 교

“많은 학생들이 제주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요”

수는 “제주지역이 가지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물류비용이나 문화·편의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컴퓨터와 IT분야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 윤리에 대해서도 “제주 지역의 인구나 환경 등이 정보 윤리 분야나 IT 관련 산업의 실증단지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제주도 차원에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IT기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IT기업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다음이나 EMLS와 같은 기업들이 내려왔지만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이뤄져야 다른 IT기업들도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물자원에 대



캐릭터쳐=허용준·특별기자

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주의 물자원은 세계적인 자원”이라며 “세계적인 물 브랜드와 함께 제주의 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콘도부도 밝혔다.

조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이 가치관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걱

정했다. 그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좀 더 다양한 경험과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보배 기자

■ 환경·안덕 꽃자왈지대 르포

“식물·곤충의 생태보고, 꽃자왈을 지켜주세요”

각종 난개발에 시름... ‘천연원시림’ 보호대책 마련해야

오름에서 흘러나온 마그마가 바위 덩어리로 굳어서 쌓인 곳. 거칠고 메마른 그곳에 울창한 숲이 생겼다. 바위 덩어리에 이끼가 자라고 갈라진 틈으로 나무가 뿌리를 내렸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다. 상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제주가 버티고 선 현실 속 그 곳. 바로 ‘꽃자왈’이다.

제주 사람들은 꽃자왈을 불모지로 여겨 경작하지 않고 버렸다고 한다. 역설적이게도 꽃자왈은 버림받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간의 손이 잘 닿지 않아 원시의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사)꽃자왈사람들’의 강태유 사무차장과 함께 환경·안덕 꽃자왈지대를 다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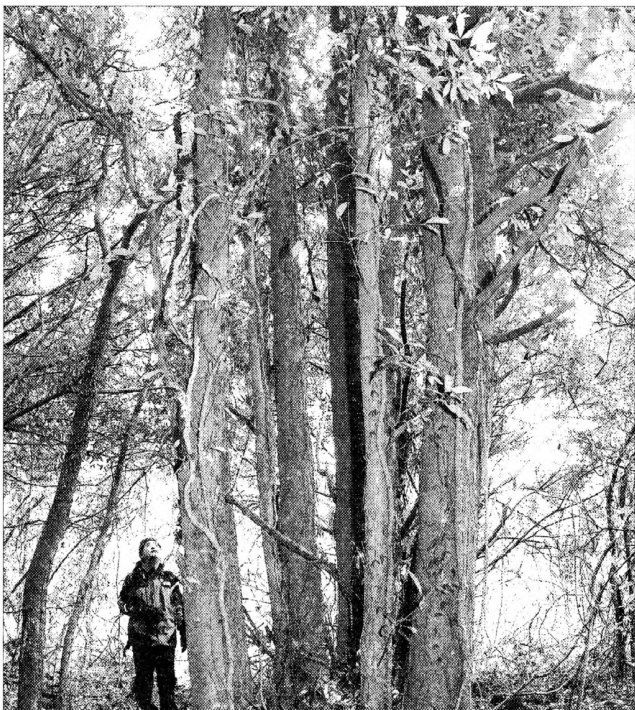
낙엽을 밟으며 좁은 길을 지나자 거대한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바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들이었다. 흙 한 줌 제대로 없는 암석 위에서 물과 낙엽의 양분만 먹고 자란 것이다. 나무뿌리는 인간힘을 쓰며 바위를 끌어안고 있었다. 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으면서 바위에게 빗을 질 수 밖에 없다.

강태유 차장은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몇 그루로 보이나’고 물었다. 내가 다섯 그루쯤 꽤 보인다고 대답했지만 틀렸다. 정답은 한 그루였다. 여러 개의 굵은 줄기들은 모두 한 뿌리에서 자란 것이다. 많은 나무들이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고 남은 밀통에서 새싹이 돋아 여러 개의 줄기로 자란 것이다. 바로 ‘맹아림’이다.

꽃자왈은 제주의 스편지
빗물의 90% 이상 지하수로 흡수

시신을 옮기자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 거대한 함몰지형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깊이가 족히 4m는 넘어 보였다. 함몰지형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돌을 밟고 내려갔다. 이끼조차 밟기 미안해서 조심 조심 발을 디뎠다.

함몰지형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층층히 쌓여있었다. 위를 올라다보자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여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바위 사이사이로 밤나무 잎같이 생긴 ‘밤일엽’도 보였다. 척박한 돌밭에서 이런 숲이 만들어졌다니 놀라움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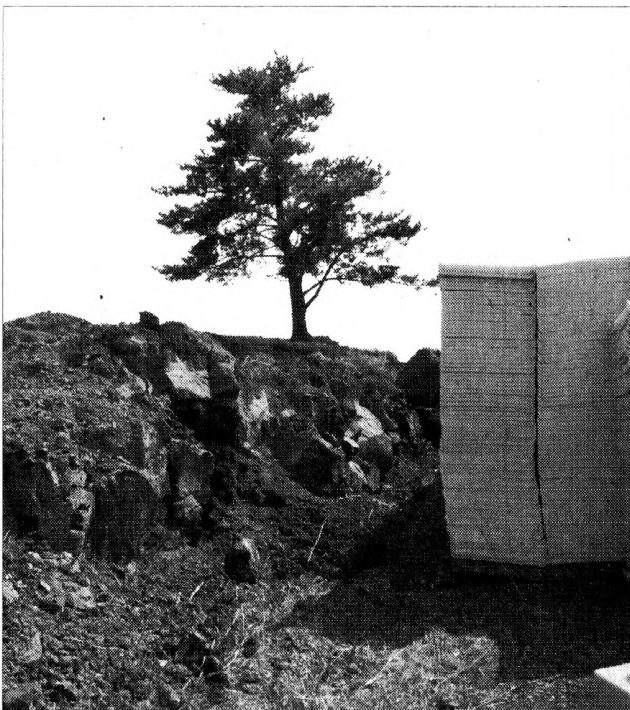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울창하게 자란 ‘개가시나무’를 꽃자왈사람들 송시태 대표가 올라다보고 있다. (사진제공·꽃자왈 사람들)

꽃자왈에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환경부지정 보호 야생식물인 개가시나무, 한국미기록종인 창일엽, 환경부 희귀식물인 붓소나무 등이 살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아서 동식물의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비가 올 때면 꽃자왈은 제주의 ‘스펀지’가 된다. 거의 100%의 빗물을 지하로 흡수한다. 때문에 꽃자왈 주변 지역은 평생 흡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이렇게 모인 빗물들은 해안에서 솟아나 제주도민의 식수로 활용된다. KBS 환경스페셜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해 드러난 꽃자왈 지층에 소반차를 동원해 물을 쏟아 붓는 실험을 했다. 놀랍게도 물은 흘러내릴 겨를도 없이 모두 지하로 흡수됐다.

환경스페셜에 따르면 일반적인 토양은 빗물의 10~20%만 지하로 흡수하지만 꽃자왈은 90% 이상을 흡수한다. 또한 물이 스며드는 속도도 일반적인 토양에 비해 꽃자왈이 만 배이상 빠르다고 한다.

이제 중산간 지역에 있는 숲들은 대부분 목장이나 경작지 등으로 개간됐다. 그동안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꽃자왈만이 남았다. 제주에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해 줄 숲은 한라산을 제외하면 꽃자왈 밖에 없는 것이다.



꽃자왈이 있는 안덕면 일대에 ‘신화역사공원’이 건설되고 있다. 나무가 다 베어지고 소나무 한 그루만 외롭게 꽃자왈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꽃자왈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골포장, 채석장 등 대규모 개발이 가장 큰 문제다. 꽃자왈 지대는 불모지여서 땅값이 싸고 대부분 마을 소유여서 한번에 사들이기 쉽다. 때문에 꽃자왈은 대규모 개발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꽃자왈이 있는 안덕면 일원에 ‘신화역사공원’을 짓는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갔다. ‘딱딱딱딱’ 포크레인이 암석을 깨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화역사공원 부지에는 이미 대부분 나무들이 사라져 있었다. 소나무 한 그루만이 외롭게 공사장을 지키고 있었다. 아마 공사가 완료된 후 나무를 쓸 곳이 있어서 남겨둔 것 같았다. 황량한 모습에 그곳이 꽃자왈이었다는 사실이 절대 믿기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남송이 오름’ 정상에 올라가 공사 현장을 내려다봤다. 넓게 펼쳐진 꽃자왈을 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었다. 도로를 경계로 왼쪽에는 꽃자왈이 아름답게 살아있었지만 오른쪽에는 등성 등성 섬처럼 보이는 숲 외에는 전부 깨끗하게 사라졌다.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만 같았다. 맑고 시원하다고 느꼈던 남송이 오름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상태로 변해 모두 사라져 버렸다.

67년 한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다는 산 불관린인 고길선(안덕면 서광리)씨는 아

직도 숲이 울창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몬딱 해사부나 마음이 아프주게. 여기가 이 자락 행하진 않았주. 전부 나무로 꽉 차고 좋은 자연석도 많아나서. (모두 헤쳐 버려서 마음이 아파다. 여기가 이 정도로 행하진 않았다. 전부 나무로 꽉 차고 좋은 자연석도 많았었다.)”

대규모 개발로 꽃자왈 훼손
한번 파괴되면 복구 방법 없어

강태유 차장은 개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개발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이 선행돼야 합니다. 꽃자왈처럼 한번 파괴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곳은 꼭 지켜야죠.”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귤가에 ‘딱딱딱딱’ 거리는 포크레인 소리가 떠나지 않을었다. 개발을 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꽃자왈은 포크레인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제주의 스편지이자 허파인 그곳을 모두 밀어낸다면...

혹시 우리는 먼 미래 후손들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고용희 기자

■ 3학년 편입 16세 하수연양

“하고 싶은 일 너무 많아요”

올해 산업디자인학과에는 특별한 편입생이 들어왔다. 그 주인공은 올해 만 16세가 된 하수연씨. 그녀는 올해 제주관광대학교의 멀티미디어과를 졸업해 산업디자인 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3학년으로 편입했다. 다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갈 나이에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편입까지 한 요망진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검정고시요? 동생덕분이지요” 검정고시를 보게 된 이유에 대해 별다른 계기는 없었다고 한다. 단지 그녀의 동생 덕택에 검정고시를 알고,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 생활을 하던 그녀는 반복되는 생활에 흥미를 잃고 학교를 나오게 됐다. 그녀가 검정고시를 본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오기를 갖고 열심히 노력했고 드디어 2008년 4월 고입 검정고시를, 같은해 8월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이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해 줬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언니, 오빠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녀가 다니던 관광대학 멀티미디어과에서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위주로 공부를 했었지만 편입하면서 디자인을 중심으로 공부하다보니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일례로 ‘시간표 사진’을 들었다. 그녀가 관광대를 다닐 때는 시간표가 정해져 나왔다. 제주대에서도 시간표는 걱정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스스로 시간표를 관리해야 하는 생소한 환경에 적응이 힘들었다고 한다. 또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보니 시간표를 착각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그녀는 “첫 등교 날이 화요일이었지만 월요일로 착각해 월요일 시간표로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다음날이 되어서야 실수를 한 것을 알고 많이 당황했었다”고 말했다. 한바탕 해프닝을 겪고 난 후 언니, 오빠들과 친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하수연(멀티미디어전공 3) 학생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언니, 오빠들에게 많이 묻고 배웠다”고 털어놨다.

어린나이에 덕에 나이 많은 후배를 거느리는 생활도 하고 있다. 그녀가 편입해 오기 전 학원을 다녔는데 디자인을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대학에서 화과 후배로 만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학원에서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후배로 만나게 되니 기분이 참 묘했다. 그래도 아직 어린 나이다보니 학교에 모든 사람은 언니, 오빠라 생각하며 다지고 있다”는 소감을 전했다.

“모든 것이 설레요”

대학고 3학년을 다니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은 17세 소녀다. 얼마 전 카메라를 구입했다. 메이크업에도 관심이 많다. 그녀는 “제주대에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야 과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며 “틈틈이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편입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하루하루가 설렌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산업디자인학부를 다니면서 그녀는 “너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내가 만나본 그녀는 욕심 많은 소녀였다. 물론 17세 소녀만의 욕심이 아니다. 제주대생으로서 욕심이 더 많아 보인다. 언니, 오빠들과 어울리며 동시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그녀의 당찬 행보를 기대해 본다.

강보배 기자

■ 영화 세상을 만나다(6)

‘꽃비’를 내리는데 실패한 ‘꽃비’

4.3을 다룬 영화 ‘꽃비’에 대한 감상문

영화가 시작하면 학교전경에 이어 얼굴에 피를 흘리는 서연(한이민 역)이 등장한다. 대조적인 느낌과 색채. 전자는 평화롭고 아늑하다. 반면 후자는 동트기 전 새벽녘 싸늘한 빛이 감돌며 공포스런 느낌을 넘어 초현실적인 정서를 안긴다. 영화 시작 장면은 영화 결말에서 다시 만난다. 우리는 결말에서 학교풍경과 서연의 피흘리는 얼굴을 다시 목격해야 한다.

비극은 무한 반복되고 있다

정종훈 감독의 ‘꽃비’는 ‘반복’의 이야기고, ‘순환’의 이야기다. 학교의 시작과 끝, 혹은 서연의 시작과 끝. 우리는 영화를 보는 내내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뱅뱅 돌았다. 학교에서 출발했지만 역시 학교로 돌아와야 했다. 서연을 만났지만 다시 서연을 만났다.

지리적 관점에서 보면 제주를 한바퀴 돌았다. 정종훈이 의도하는 제주 4.3 관점으로 말하면 유해발굴지인 제주공항을 돌아 다시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학살의 비극이 서린 복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시 복춘초등학교로 돌아오는 지점.

시작과 결말의 매듭. 이 영화는 매듭지어진 경

로 무한히 반복되는 ‘피비우스 피’ 같은 형상이다.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다.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 발버둥치고, 비로소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지점에 다시 만나는 트라우마. 운명으로 얽혀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와 반복되는 역사의 연결고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종훈의 의도대로라면 4.3의 비극은 무한 반복되고 있다.

실재하지 않는 ‘혼(魂)’으로서 서연

우리는 학교와 서연에서 출발해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온 경로를 탐색해야 한다. 이 영화의 연도는 1960년대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1969년 이후다.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교실 안에 걸린 ‘국민교육헌장’이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12월5일 선포됐다. 이를 근거로 추측하면 ‘꽃비’의 배경연도는 1969년 3~4월 이후임을 알 수 있다.

의문이 생긴다. ‘서연’은 누구인가. 분명 영화 속에서 서연은 4.3을 겪은 세대로 등장한다. 어린 시절 서연은 동생이 있는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연령대로 보여진다. 이를 근거로 태어난 연도를 따지면 1940년생 전후로 추측할 수 있다. 1940년

생으로 가정하면 서연은 1969년에 한국나이로 30세다. 하지만 영화에서 서연은 고등학생이다. 상식적 연령대라면 19세 이하가 되어 한다.

그렇다면 ‘꽃비’에 등장하는 서연의 존재는 무엇인가. 어쩌면 서연은 실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지 않을까. 영화 시작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서연의 존재. 무참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영령이 된 초현실적인 존재로 보인다. 서연은 ‘혼(魂)’이다.

시대와 조응하지 못해 개인취향으로 남은 ‘꽃비’

‘꽃비’는 1960년대 말 제주를 배경으로 혼이 된 서연이 겪은 무참한 폭력의 기억을 ‘이미지’로 ‘구술’하는 영화로 보인다. 실제로 존재하는 배경은 제주를 감한 자연과 1960년대 말 학교가 전부다.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정책으로 온 나라가 ‘삽질’소리로 가득한 시절. 제주4.3의 아픔은 연좌제의 골레로 수면 밑에 가라앉고, 반공과 수출, 개발주의가 국민을 세뇌시켰던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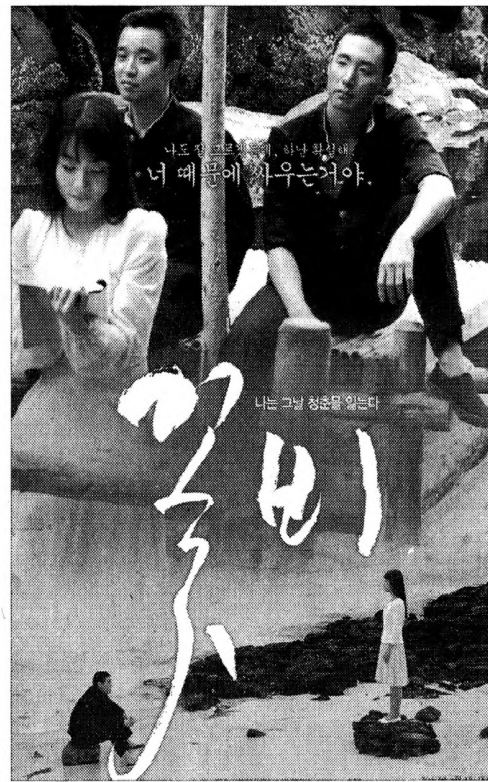
그러나 영화 시작에 등장하는 학교는 4.3의 기억이 강제로 퇴거되고, 개발주의가 대두된 1960년대 제주의 풍경이다. 바로 이어지는 서연은 해

원(解冤)하지 못한 영령이다. 학교를 배경으로 서연의 회상이 시작되고, 회상의 끝은 다시 역력한 영령으로 학교를 배회하는 ‘서연’에게로 온다. 결국 서연을 욕망하는 도진, 민구, 동일도 실재가 아니다. 서연의 기억이다. 동시에 서연을 폭력으로 짓밟은데 직·간접적으로 관계한 주체다.

여기서 비판지점이 생긴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서연과 서연을 둘러싼 주체들의 관계다. 구체적인 말하면 주변 주체들이 서연과 관계하는 과정이다. 서연을 짓밟은 왜곡된 욕망과 폭력이 작동하게 된 과정과 결과다. 정종훈은 피비우스 피를 따라 서연이 기억하는 폭력을 반복 재생하고 있다. 정종훈은 4.3을 객관적으로 보았다고 했다. 정종훈이 객관적으로 바라본 제주4.3의 본질은 ‘폭력’이다.

문제는 폭력이 향한 대상이 서연의 ‘순결’이라는 점이다. 왜 우리는 서연의 ‘순결’이 무참히 짓밟힌 기억을 반복 공유해야 하는가. 왜 정종훈은 4.3의 아픔을 ‘순결의 훼손’과 동일시하는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지적 관점. ‘순결주의’가 이 영화에서 반복되고 있다.

정종훈은 4.3과 폭력의 기억을 극히 남성적인 시각에서 왜곡되게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왜 정종훈은 서연의 혼이 필요했던 것일



영화 꽃비의 포스터.

까. 서연은 순결주의 시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결과.

그리고 왜 ‘꽃비’는 4.3 이후인 1960년대 말, ‘포스트’ 4.3의 시각으로 1960년대 이후 제주를 애써 무시하는가. 시대의 비극이 시대와 조응하지 못하면서 ‘꽃비’는 개인취향으로 축소 의미화된 인상을 준다. 게다가 극히 남성우월적인 취향으로 말이다. 극중 도진과 동일이 서연을 짓밟는 장면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꽃비’는 ‘꽃비’를 내리게 하는데 실패했다.

이영은 특별기자

무론유설

生無百歲死千秋

〈살아선 백세를 누리지 못하였어도 죽어서는 천년을 가리라〉



정창원 사학과 교수

작년 WBC에서 이치로로 대표되는 일본타선을 무력화시킨 봉중근 선수는 이를 계기로 팬들로부터 '국민 영웅' '봉중근 의사'라는 칭호를 얻었다. 아마도 야구팬들은 일본 야구계를 대표하는 이치로 선수에게서 '이토 히로부미'의 이미지를, 그리고 그를 경기에서 완벽하게 제압한 봉중근 선수의 모습에서 의사(義士) '안중근'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라. 올해는 바로 30년 7개월이라는 짧지만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안중근의사께서 순국한지 100주기가 되는 해이다.

1879년 황해도 해주부에서 부 안태훈과 모 배천조씨 사이에서 3남 1녀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청년

기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 하에서 삼흥학교(三興學校)를 운영하는 등 유업사업에 헌신하며 국제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29세 때인 1907년, 정미 7조약에 이어 군대가 해산되고 시위대가 봉기하였을 때, 국외활동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간도,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한 그는 계동창년회의 임시사찰직을 맡아 연해주에서 본격적인 항일독립투쟁을 시작하였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당시 한국통감으로 오다가 일본의 추밀원의장이 되어 러시아정부의 재무대신인 코코프체프를 만나기 위해 북만주 시찰에 나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체포당한다.

안의사는 조사과정에서 그의 저격에 대한 이유를 러시아 검사신문에서부터 이듬해 2월의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그는 일본 법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므로 개인자격이 아닌 대한의군 사령관으로서 처형하였다."고 밝힌 뒤 사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포기하며 죽음을 선택했다. 그리고 1910

년 3월26일 오전 10시, 뤼순 감옥에서 형이 집행됐다.

平生營事只今畢 평생을 버르던 일을 이제야 끝내었음이니 死地圖生非丈夫 죽을 땅에서 생을 도모함은 장부라 하지 못할 것 이로다.

身在三韓名萬國 몸은 삼한에 있었지만 이름은 만방에 떨친 것이니 生無百歲死千秋 살아선 백세를 누리지 못하였어도 죽어서는 천년을 가리라.

안중근 의사의 거사(舉事)를 들고 난 후,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윈세개가 지었던 시이다. 안의사의 고귀한 죽음을 외국인인 윈세개조차도 역사가 기억해야 할 것임을 알았던 것이다.

역사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수많은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후 벌어지게 되는 일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고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학문분야다.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각 매체에서는 안의사에 대한

행적과 의거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미시적 관점에 치우쳐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역사가 홀대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기본적인 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은 스스로 역사적 교양과 안목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기피한다면, 우리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타국인(他國人)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안중근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힘썼던 위대한 인물을 저격한 테러리스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이 일본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기로 결정한 지금, 우리의 역사교육은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등한시하여 상실하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는다면 안의사의 의거는 '이름을 만방에 떨치고 죽어서는 천년을 가리라'던 윈세개의 비판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사설

4·3과 대학의 과제

4·3 62주년을 지내는 지금, 정부의 4·3 해결 의지에 대한 우려와 실망감이 제주사회에 퍼지고 있다. 참가 예정이던 국무총리의 희생자 위령제 불참마저 우려의 눈길로 모아지고 있다. 총리의 불가피한 일정에 대해 이해심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4·3 위원회 폐지 논란, 4·3 관련 예산 삭감, 4·3 위원회 기능 마비 등과 함께 일부 우익단체들의 무리한 소송 제기까지 겹쳐, 그 동안 힘겹게 쌓아온 4·3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에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4·3특별법 제정으로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4·3 해결의 제도적 방향은 '화해와 상생'이었다. 이러한 해결방향에 대해 광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사실 갈등과 논란도 없지 않았다. 이른바 '폭동론', '항쟁론'과 같은 이념적 접근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와 함께 이념적 해석을 넘어 미래지향적 해결을 모색해 나가자는, 희생자, 유족을 포함한 제주지역 주민들의 끈기 있는 노력이 결국 그러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가해자 책임론'을 일단 묻어두자는 묵시적 합의가 요점이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을 포함하는 '진실과正義' 방식 해결을 지양하고, 진실 규명을 전제로 형사책임 추궁을 포기하는 '진실과 화해' 방식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벌은 만달라에 의한 남아공의 성공 사례 등과 대조되면서 세계사적 보편성도 획득해 나가고 있었다.

4·3 특별법 이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의 사과 등은 모두 그런 기본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내용, 형식 면에서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화해와 상생'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정의'의 요청을 일부 양보하면서 어렵게 이루어온 방향이다. 일부 우익단체들이 폭동론에 의거하여 과거 회귀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분노

하는 것에는 그런 사정이 전제되어 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정부가 일부 우익단체들의 과거 회귀적 움직임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져 가면서 정부의 4·3 해결 의지에 대한 우려와 실망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지향적 해결을 모색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회귀적 논리에 의해 왜곡되는 모습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실망감은 여간한 것이 아니다.

지금 화해와 상생, 진실과 화해 모델에 입각한 4·3 해결의 진전을 위해 대학에 부여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진실과 화해 모델 속에서도 그 동안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과제가 미해결로 제시되어 왔다.

첫째는 가해자 규명 내지 加害者學의 과제다. 진실과 화해 모델은 가해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포기하더라도 역사적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둘째는 4·3 피해에 대한 국가적 배상 또는 보상의 과제다. 진실과 화해 방식이 국가적 배상 또는 보상 문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가해자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이른바 '살아남은 사람들', 후유 장애인이거나 유족, 나아가 제주지역 주민들에 가해졌던 억압과 피해의 문제를 정책화하는 과제다.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은 더욱 현실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논의와 조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대학에서 이론적 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대학에 대한 기대는 커져가고 있다. 4·3의 미래지향적 해결이라는 과제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다.

미디어 세상읽기

위기의 지방신문과 새 신문의 창간

새 신문이 곧 창간한다. 제주도민일보의 '제주 언론 새 역사에 도전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자직과 업무직 등에서 경력 및 수습사원을 뽑는다고 했다. 이 신문을 창간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민일보 자발적 해직자 모임'이라 불렀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달을 창간목표로 정했다. 20여명의 기자들로 새로운 신문관청과 인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지방신문의 창간 이유로 시주가 신문사를 포기업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부추기는가 하면,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기자들로 하여금 기사를 발미로 광고 유치에 나서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시도에 지지를 보낸다. 지역의 대안적인 새 매체로서 다양성을 확보하며 지역의 삶과 현안을 의미화하고 소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전제에서다. 그러나 새 신문의 창간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굵지 않아 보인다. 아예 냉소에 가깝다. 대체로 "또 신문을 창간하는 거야, 도대체 언론사가 몇 개야..."라는 반응이다. 이러한 시장의 여론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위기의 지방신문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지역 신문의 매출액은 적지 않거나 아니면 적자를 겨우 면할 수준이다. 그것도 종사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감안한다면 그 의미는 심히 퇴색된다. 그럼에도 지방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 곳곳에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지역에 4개 일간지, 5개 주간지 및 특수지, 18개의 인터넷신문이 있다. 숫자로만 따져도 56만 인구와 지역경제 규모에 비해 많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 좁은 광고시장을 놓고 온·오프 신문사들의 혈투에다가 2개의 공영방송, 민영방송, 특수방송, 종합유선방송까지 가세해 광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조선·중앙·동아는 제주일보에서, 한국일보의 제민일보에서 현지 인쇄를 하는 등 중앙지들의 지방 동시인쇄 시스템 구축과 메이저 신문들의 공격적인 판촉까지 겹쳐 지



방지들의 점유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그나마 지역방송사들은 서울에서 만든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대가로 받는 중계료나 광고료 덕분에 경영상 어려움은 덜 하다. 결국 지방신문이 협소한 광고시장 안에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정상적인 저널리즘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신문의 창간을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새 신문이 다양한 도민여론의 창구로써 건전하게 기능한다면 지방신문의 수적 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배포 범위로 삼고 있는 지역사회의 개발과 복지증진,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를 두루 수렴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창간의 의미와 기능은 재차 강조되고 있다. 새 신문은 적어도 차별화된 기사로 독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지방신문은 자기 고장의 어제와 오늘, 미래를 알려주는 정보지이며, 동시에 자신들의 삶의 일부가 담긴 소중한 매체다. 우리에겐 저명한 사람들이나 복잡한 정치 현안들로 가득 찬 중앙지보다는 우리 이웃의 정겨운 이야기를 담은 지방지가 삭막한 세상 속에서 더욱 필요하다.

정용복 대기자

기고

바다는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터전인가



이준백 지구해양학과 교수

연일 해군 천안호 사태로 온 나라가 힘들어 하고 있다. 우리의 과실인가? 아니면 불순분자의 소행인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단정지을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바다라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한계성이다. 생존자 구조 활동이 더 어려운 것은 바다는 물이라는 매질로 둘러싸여 있어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하지만 인간의 조건은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바다를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선조들이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오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후손들을 남겨 놓으려는 유전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그 삶터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요즘에도 심심치 않게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옛부터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 이를 거슬리면 반드시 보복이 온다고 생각하며 바다 사람들은 산재물을 버치며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왔다. 그 중 서양에는 포세이돈이 대표적이고, 동양에서는 바다의 용궁에 살고 있는 용왕님의 위력을 대단하게 여겨 왔다.

현대 과학은 신들의 존재를 부정도 인정하지도 않은 채 바다도 자연 현상의 하나로 보고 모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인간이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예측만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학적 노력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육체적으로 그 한계를 이겨내려고 할 때 절망감도 느낀다. 우리는 수많은 바다 사고를 접하며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들이 천재지변 보다 인간의 무지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흔히 바다는 지구의 71%를 차지하며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어 우리의 마지막 보고라고 치켜 세운다. 그런데 바다는 자원의 저장 장소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장소로써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난히 눈과 비가 많이 내린 금년 겨울도 전 지구적 대양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의 한 현상이라는 것은 이제 과학적 상식이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 중 저탄소 녹색성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라 할 수 있다. 제주도도 금년에 해양수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바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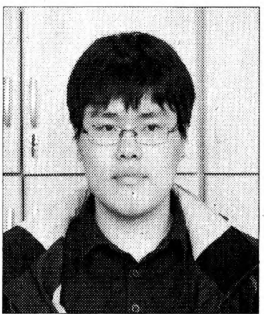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이번 천안호 사고를 통해 본 그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바다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우리 제주도도 일부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발만 닦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물가에 가지마라, 물을 조심하라 등의 어른들 말씀을 귀에 새기며 자랐기에 바다는 너무나 위험한 곳이라는 일방적인 태도에 의해 어떠한 탐구적 노력도 단절되어 왔다. 그렇기에 바다에서 이런 대형 불행한 사고가 나면 왜 육상에서와 같이 일상불란한 구조를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은 해역과 수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바다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바로 이해한다면 모든 인간의 육체적 노력도 한계가 있어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일반인들에게 바다를 좀 더 올바르게 이해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하고, 바다 교육과 바다 체험 등의 대민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그것이 바다는 원래부터 위험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친밀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며 안심처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독자기고

'한땀한 62년'을 기억하는 4·3민주올레



이대유 경제1

외지 출신으로서, 4.3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죽고 큰 피해를 봤다고 하는 교과서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다. 제주대학교에 입학 후 신문사 수습기자 활동을 하면서 4.3 관련 행사를 취재하는 기회를 맞았다. 그 과정 가운데 민주올레를 걷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이 행사는 4.3유적지를 연결하는 길을 걸으면서 4.3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민주올레의 첫 여정은 동백동산

을 거쳐 꽃자왈로 가는 산책로였다. 올레길은 아름다운 경치와 완만한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산길을 빠져나와 한참을 걷자 언뜻 보기엔 조선 또는 고려 시대의 읍성을 복원한 것처럼 보이는 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읍성이 아닌, 현대사의 비통한 흔적을 복원한 것이었다.

선홍리라는 마을에 복원된 석성은 사실 중산간지대에 살던 제주도민을 수용하는 수용소였다. 또 함께 복원되었다는 함바집도 임시로 사람이 사는 집 그 이상 이하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이곳의 안내판을 치우거나 가린다면 더 더욱 작은 고성으로 보였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 수용소에 도민들을 수용하였다 하니 4.3 당시 토벌대를 걷는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이 행사는 4.3유적지를 연결하는 길을 걸으면서 4.3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답사는 북촌리에서 끝났다. 4.3의 아픔을 간직한 북촌초등학교에

갈린 화산한 잔디는 62년 전의 사건을 완전히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역사가 잊혀진다면 그저 경치 좋은 동네로 보일 장소이겠지만, 4.3에 대해 설명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강산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이 역사를 잊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전했다.

답사의 끝을 맺는 자리는 4.3을 기억하고 평화의 섬을 기념하자는 뜻에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추모의 내용이 적혀있을 법한 비석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 특색하였는데, 분명 어떠한 의미를 전달할 생각이 있기에 비석들을 놓여 놓았으리라.

하지만 마지막에 4.3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분의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이후에 생각해보니 국유세력들이 비석을 놓여 놓은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들었다(사실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놓여놓은 것이라고 들었

다).

답사 후에 4.3사건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간단하게 정리된 글을 보게 되었다. 몇 점 건너 유족분들이 사시고, 한낱 한시에 제사를 올리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게 피해를 입고, 또 몇십년을 잊혀졌고, 이제야 재조명되고 참 역사를 기억하자는 분위기가 퍼지려 할 즈음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국유세력들은 그 분들이 흘린 눈물과 고통 따윈 아무래도 좋다는 투로 역사를 왜곡하려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타자적인 나조차도 기본이 좋지 않았다.

대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유명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하루였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글언이 기억되는 하루였다. 잊어서도 안되겠지만 잘못 이해해서는 더더욱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오피니언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nu.ac.kr
홈페이지 http://www.news.jejunu.ac.kr

〈4.3 추모제 현장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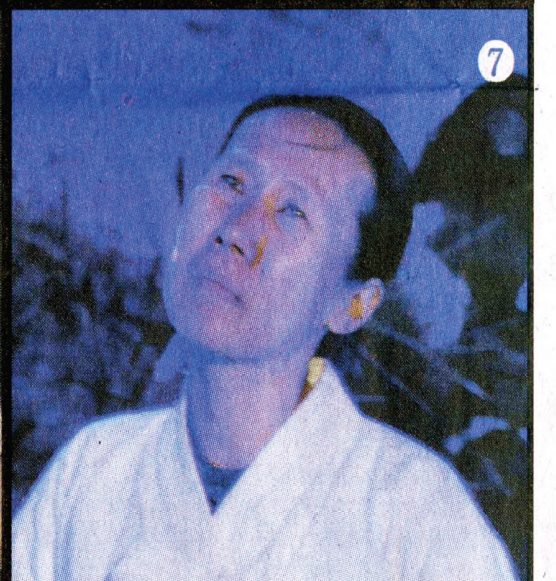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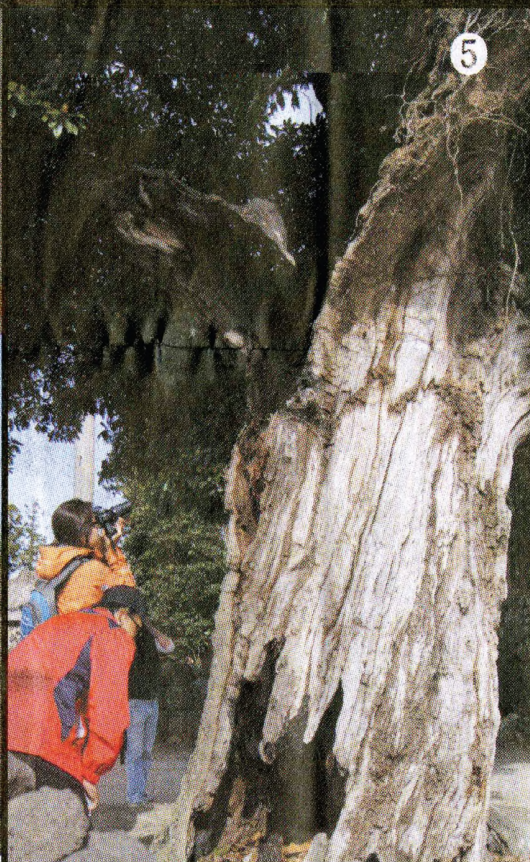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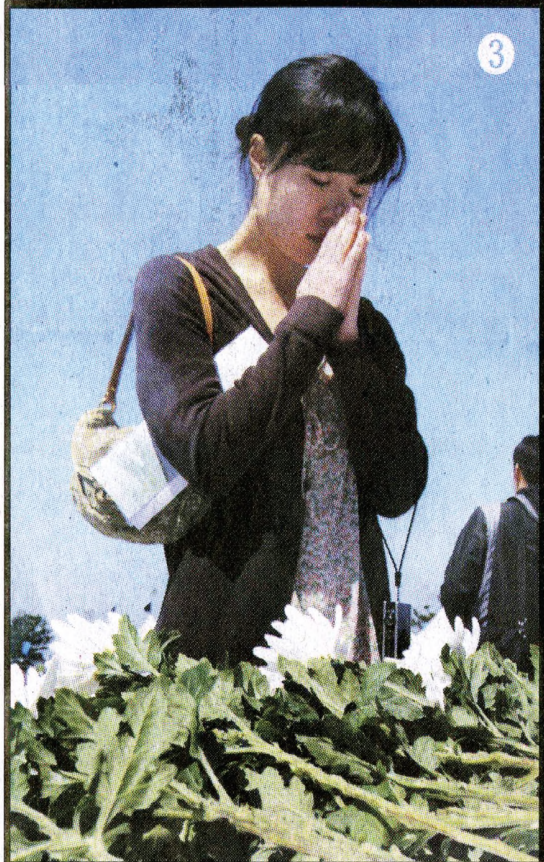
4·3 상처 넘어 평화의 섬으로... 망각의 강요에 대한 기억의 투쟁

추모의 물결로 제주가 일렁였던 2010년 4월. 억울한 영령들을 기리는 추모의 현장들은 속연했다. 제주대신문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제62주년 4·3전야제, 제17회 4·3 문화예술축전, 제주 사건희생자 위령제 등의 현장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박종건·강보배·백종수 기자



- ① 지난 3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서 추모객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② 4·3위령제를 찾은 유가족이 제를 지내고 있다.
- ③ 위령제에서 한 여성이 헌화 뒤, 기도를 하고 있다.
- ④ '민주올레'에 참여한 현기영 소설가
- ⑤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신홀리 볼카분남
- ⑥ 4·3 전야제 행사 가운데 제주오름 민속 무용단 공연 '오작교'의 한 장면
- ⑦ 놀이패 한라산이 지난 3일 문예회관에서 사월굿 백조일손 공연을 하고 있다.
- ⑧ 3대가 함께 찾아온 유가족이 헌화를 하고 난 뒤 묵념하고 있다.



당신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획·디자인에서 인쇄까지 ONE-STOP 공정으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최상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신우기획 / 도서출판 신우

상담전화 (064) 746-5030

• 제주시 오라3동 2988-4

• E-mail: sw5030@hanmail.net